

미국의 Christian Veterinary Mission

김현영 펜실베이니아주 수의연구관, 재미한인 수의사

얼마 전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전문가 선교회의(Professional Global Mission)에 참석하였다가 한국 선교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는 자기의 조카가 한국에서 수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외국에 나가 동물의료선교를 하고 싶지만 그러한 단체와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 수의사 기독교 단체인 Christian Veterinary Mission (CVM)을 소개한 적이 있다.

CVM은 세계 여러 나라로 미국의 수의사를 보내는 선교단체로서 이들은 주로 미국 내에서는 인디언촌을 상대로 외국으로는 가난한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되어 수의학을 통해 기독교 박애정신을 전파하고 있다.

실제 이 단체에서 파송되는 선교사들을 보면 수의사뿐만이 아니라 수의 테크니션, 수의과대학 재학생들로 구성되어 2~3년의 장기선교, 또는 2~3주간에 단기선교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수의학에 전문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동물의 건강을 보살피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향상시켜 주는 인격을 우선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선교단체는 1978년에 태어났는데 시작은 이 단체의 창립을 주관하였던 조지아 출신의 Dr. Leroy Dorminy 였다. 그는 개업수의사로도 성공하였고 충실한 기독교신자였는데 1975년 스웨덴에서 열렸던 세계 기독교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회의 중 미국에서 온 대표 한 사람이 “아프리카 같은 못사는 나라에는 어떻게 도와 주는 것이 좋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였다고 한다.

그때 아프리카에서 온 여자 대표가 대답하기를, “와서 우리들에게 당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만 가르쳐 주면 우리가 그다음은 해결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미국에 돌아온 Dr. Dorminy는 큰 감동을 받고 여러 기독교 수의사 동료들과 접촉하면서 1978년 조지아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발하게 되었다.

현재 약 3,500여명의 미국수의사들이 이 단체에 가담하고 있으며 40여명이 해외 장기 수의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200여명이 2~3주간에 단기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봉사하는 국가 중에는 남미, 아프리카, 몽고, 중국, 태국,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필자가 살고 있는 펜실베이니아에서도 현재 수의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Dr. Scott Karper가 있는데 그는 대동물 수의사로서 성공하여 매년 중남미 카리비안 해안으로 여행하여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겼는데 그곳 현지사람들이 너무 못사는 것을 보고 기독교인으로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 부인과 함께 의논하여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결심하고 CVM에 동참하여 주로 남미에서 봉사하고 있다. 그는 남미에 있는 혼두라 북부지역에 4000여명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 농민들은 가축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 그들에게 동물사육과 위생에 대하여 교육시키고 동물들을 치료하여주고 있다. 그는 수의사라는 전문직이 가난한 농촌지역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고 한다.

그의 경험으로는 가난한 지역에서는 가축 몇 마리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때로는 재정적으로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는 경우도 있으며 건강한 가축은 가축 전체의 생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어 결과적으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고 하였다. 확실히 수의학은 특별한 기술로서 필요한 곳에서 동물과 인류에게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전문직이다.

미국수의사회(AVMA) 2006년 1월 1일자 Journal에는 CVM은 지난 20년간 세계 50여국에 수의축산 관계서적과 교육 자료를 보내어 크게 공헌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CVM은 1980년초 개발도상국들의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면서 동물건강과 공중보건에 관한 교육자료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CVM은 최신학문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간단한 언어로서 또한 그림으로 설명 되어있는 책을 발간하는데 집중하여 1984년에는 "Raising Health Swine"을 처음으로 발간하여 각 나라로 보내게 되었다. 이 책은 주로 영양실조와 기생충 치료 관리에 중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중미 카리비안 해역에 있는 섬나라인 헤이티(Haiti)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1980년대 African Swine Fever가 헤이디에서 발생하게 되어 모든 돼지를 도살하여 없애고 대신 산양으로 대체하여 기르다가 몇 년 후에 돼지를 재공급하여 기르게 되었는데 그때 미국 수의선교사들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책이 크게 사용되었다고 한다.

가난하였던 농촌은 돼지를 성공적으로 사육하여 경제적으로 회복되었으며 특히 엄마들이 돼지 사육에 많이 참여하였는데 학교도 중단하였던 자녀들이 다시 학교에도 가게 되는 등 생활의 질이 발전하는데 CVM과 이 책이 크게 공헌 한 것이다.

그 후로 CVM에서는 소, 산양, 양계 등에 관한 많은 실제적인 책을 발간하여 세계 50여 나라에 보내고 있었다. 그동안 발간된 책 중에는 “Where there is no animal doctor”라는 제목으로 410페이지나 되는 두꺼운 책이다. 필자도 구입하였는데 이 책은 수의과대학에서도 보지 못하였던 특수한 책으로서 수의사들도 꼭 필요한 책이다. 현재 이러한 책들은 10여개 이상의 언어로서 번역되어 공급되고 있다.

현재 해외 선교사 파송에 있어 세계적으로 미국이 제일 많이 보내고 있으며 두 번째로 한국이 많이 보내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세계 10대 무역 국가로 발전하는 나라로서 선교사 파송은 세계 2위라는 것을 보면 확실히 축복받은 나라이다.

AVMA이 CVM을 도와 외국에 많은 수의선교사들을 보내며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느낀 바가 많았다. 캐나다와 유럽 몇 나라에서도 “veterinarians without borders”라는 기독교수의사 단체가 있어 가난한 외국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수의사회도 외국 나라로 한국 수의사들을 파송하여 가난한 현지인들을 수의전문 기술로서 도와 줄 때가 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중 CVM 회장인 Dr. Powers로 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2005년도 한국에도 CVM 비슷한 기독교수의사 단체가 생겼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보람 있는 봉사단체가 되기 바란다.

이러한 외국선교에 흥미가 있는 분들은 CVM에서 발행한 “Mission Vets”를 읽어 보시길 바란다. 이 책은 CVM의 살아있는 역사책으로서 많은 감동을 주며 기독교 수의사로서 한번 하여야 할 사명까지 찾을 수가 있다. 기독교 수의사로서 선교에 흥미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필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kimdvm@comcast.net) 